

+찬미예수님

어느덧 봄이 느껴지는 3월입니다.

님들의 마음에도 화창한 봄이 찾아오길 바라며, **감사한 마음담아 3월 첫째주 공지 드립니다.**

만남의 성경모임 (창세기 모임과 다릅니다.)

조 마오로 수녀님의 지도아래 진행될 "만남의 성경모임" 첫모임 일정입니다. (**RSVP** 부탁드립니다)

일시: 3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2시*

장소: 사제관 건너편 방

대상: 30대 이상 성경말씀 나눔에 관심이 있는 모든 미혼남녀 (신자/비신자 포함).

***첫 모임시, 참석하는 분들의 일정에 따라 추후 모임 일시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있겠습니다.**

관심은 있으나 토요일 오전 시간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3/4일 금요일까지 가능한 요일/시간대를 알려 주세요.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준 스테파노 형제님 연미사 - 3월 매 주일

다가오는 3월 19일은 주님의 곁으로 먼저 떠난 뜨락회 이상준 스테파노 형제님의 두번째 기일입니다.

형제님을 기억하며 3월 매 주일 연미사를 봉헌 하겠습니다. 아직 단체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주보에는 봉헌자 '뜨락회'로 올려집니다.

우리와 함께했던 즐거운 시간을 떠올리며 기도속에 형제님과 유가족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성당에서의 연도는 따로 없으나 2주기 당일인 3월 19일 평일미사에 참석하여 함께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추후 공지 드리겠습니다.

단체이름 - 추천

우리 새 단체를 대표할 이름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단체의 대상과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본당의 30,40대 미혼 형제 자매

성격: 복음안에서 일상과 신앙의 일치를 추구하며 성가정 준비를 위한 친목단체

이에 적합한 이름을 직접 또는 이메일로, 추천 이유와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합에서의 의견대로, 추천된 이름은 온라인 투표형식 대신 워크샷 형태로 하루 같이 모여 충분히 의논한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오신 분

허성운 토마스 형제님, 환영합니다. 앞으로 주님안에서 기쁜 신앙생활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순절 짧은 교리 (퍼온글)

사순시기는 재의 수요일부터 (2/10일) 부활절(3/27) 전까지 여섯 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으로, 통회와 보속 그리고 희생으로 재를 지키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동안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은 금식/금육을 함께 지켜야 하고, 제의 색깔은 보라색 (보속과 회개를 의미)으로 바꾸며, 전례에서 알렐루야와 영광송을 생략합니다.

사순절동안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40일동안 엄재하신것을 본받아 희생하고 봉사하며 지난 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계명에 충실하도록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극기와 절제를 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특히 십자가의 길을 자주 바침으로써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해야 합니다.....결국 사순 시기는 **'행동하는 시간'**입니다. 참으로 경청한 뒤에 우리는 '응답해야'하며 우리가 들은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내적인 회개를 하느님께 바치는데, 이것이야말로 부활절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순피정 - 3월 13일 주일 (본당)

사순절을 맞이하여 피정에 참석하면서 의미있는 시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 3월 13일 주일, 오후 1시~4시 (본당 점심 제공)

주제: 호랑.나.비.로 날아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지도: 채홍락 시몬 신부님

사순 제5주일 십자가의 길 (3월 13일) - 트락 구역 주관

사순 제5주일인 3월 13일 교중미사 전 십자가의 길을 트락구역에서 주관합니다.

트락회에서 십자가 복사와 초복사 각 1명, 그리고 저희 그룹에서 주송자와 초복사 각 1명이 십자가의 길 봉사를 합니다.

주송자와 초복사 봉사에 관심있는 분들은 알려 주십시오. 봉사자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더욱 정성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전례 <십자가의 길, 판공성사>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저녁 7시 20분부터, 그리고

주일 교중미사 전 10시 20분부터 '십자가의 길'을 봉헌하고 미사를 봉헌합니다.

매 미사 30분전에 성사표를 작성하여 판공 성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순시기동안 참회와 기도, 나눔과 자선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은총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016 회장단 - 전진영 베로니카, 이의천 베드로, 박보라 올리아나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6226 Camde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05

T 1-510-553-9434 | www.oakcc.org